2022 년 10 월 15 일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2022 년 10/11 월 기도제목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샬롬!

SEED MISSION CENTER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시인은 단풍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야 한다” 읊습니다. 남은 날이 끝나기 전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선교후보생 훈련 중에 “남은 과업” 강의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제목으로 준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날 불타오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이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긴축통화 정책으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9 월말로 2022 년 회계년도를 잘 마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I.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난 5 월에 이사한 SEED MISSION CENTER 사역이 날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북미다민족 선교사 모임 (9 월 26-29 일)을 SMC 센타에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지난 10 월 1 일 국제사역위원회를 줌으로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II. 기도제목 (10-11 월)

1. 안식년 (2022 년 12 월까지)동안 한국과 선교지를 돌아보며 마지막 텀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현재 주택 (게인스빌) 매각과 함께 적당한 주택 (시골 마을)을 구입할 수 있도록
3. 10 월 31 일-11 월 3 일 SEED USA 이사회와 국제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운데 잘 준비하여 전략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4.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교트렌드 2023”와 선교적 성경읽기를 연구할 수 있도록
5. 온두라스 렌카인디언 성경학교가 2023 년에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미리암, 호엘 목사, 올빈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사명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학교도 그 기초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a. 미리안 자매의 구아테말라 CETECA 석사 과정을 위하여
    b. 올빈 목사님의 Calvin Seminary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와 협력) 설교학 석사과정 공부를 위하여
    c. 신디 자매와 마르코 형제의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 학부 공부를 위하여